

2007년 세계경제 전망 총괄

이 호 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hlee@kiep.go.kr, Tel; 3460-1012)
고 희 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hccho@kiep.go.kr, Tel; 3460-1086)

주요 내용

- 2007년 세계경제는 2006년의 예상 경제성장률 3.7~3.9%보다 소폭 하락한 3.2~3.3%로 전망됨.
 -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하락과 소비증가세 둔화로 2006년 3.3%에서 2007년 3.0%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경제는 2007년 2.4% 안팎으로 성장하여 4년 연속 2%가 넘는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경제는 2007년에는 투자와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됨으로써 2006년에 비해 1% 포인트 낮은 9.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로지역 경제는 세계경제의 하향 안정화, 유로화 강세, 긴축금융정책과 유로지역의 전체적인 긴축재정정책으로 2007년에는 1.7~1.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07년 외환시장의 경우 미 달러화는 제한적 약세, 원화는 일시적인 약세 내지 보합, 장기금리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드라이브는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EU와 일본은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국제유가의 경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험의 증폭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60~65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2007년 통상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DDA의 경우 낙관적·비관적 전망에 관계없이 2007년 3월이 DDA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FTA의 경우 현재에도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활발한 FTA 추진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1. 2007년 세계경제 전망 총괄

- 2007년 세계경제는 2006년의 예상 경제성장률 3.7~3.9%보다 소폭 하락한 3.2~3.3%로 전망됨.

표 1. 각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연간	
전 세계	4.1	3.6					3.7~3.9				3.2~3.3
미국	3.9	3.4	3.3	4.2	1.8	3.2	5.6	2.6	2.2	3.3	3.0
일본	2.3	5.7	4.5	1.8	4.0	2.6	3.2	1.5	2.0	2.5	2.1
중국	10.1	9.9	10.1	9.8	9.9	10.2	10.3	11.3	10.4	10.5	9.5
EU	1.9	0.4	0.4	0.6	0.4	1.4	0.8	0.9	-	2.8	2.2~2.4

주: 분기데이터 중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일본과 미국은 전기대비연율이며, 2006년 연간과 2007년은 전망치임.
 자료: 미국-상무부, 일본-내각부, 중국-인민은행, EU-ECB, 전 세계-World Bank.

- 실질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하락과 소비증가세 둔화로 2006년 3.3%에서 2007년 3.0%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주택부문의 침체로 인한 미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가능성은 최근 개인소득과 가계 소비지출에 대한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분석해볼 때,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또한 일본경제는 2007년에도 약 2.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4년 연속 2%가 넘는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본의 경제활동인구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성장률 이상의 고성장이 2008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일본경제는 ① 중기적으로 추세성장률 이상을 달성하면서 설비투자가 확대국면에 있고, ② 개인소비와 비제조업의 회복에 따라 경제의 안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③ 미국경제의 감속과 IT 생산·재고 조정이 장기화될 위험은 낮다는 점 등에서 경기회복기조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중국경제는 2006년 연간으로 10.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2007년에는 투자와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됨으로써 2006년에 비해 1% 포인트 낮은 9.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증가와 이에 따른 과잉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불가피하

- 나, 중국정부의 환율조절원칙(자주성, 점진성, 통제가능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절상을 선택할 것이며, 절상폭도 2006년과 비슷한 2~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거래비용모형과 통화접근모형을 이용하여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예측한 결과, 2007년 6월 말 위안화 환율은 7.63~7.69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유로지역 경제는 세계경제의 하향 안정화, 유로화 강세, 긴축금융정책, 그리고 유로지역의 전체적인 긴축재정정책으로 2007년에는 1.7~1.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미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드라이브가 중단되고, 8월 중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7월에 비해 2.7% 늘어난 698.6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인 668억 달러를 초과함. 이에 따라 2006년 하반기와 2007년에는 유로화 강세가 예상되며, 이러한 유로화 강세는 기업의 투자증대 및 고용증가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점증하면서 약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금리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이 2007년 중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이유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2007년 중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은 2007년 중 금리인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정책금리의 경우 미국은 지난 2004년 6월 이후 지속되었던 금리인상드라이브는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EU와 일본은 정책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원화 환율의 추이를 관찰할 때 글로벌 재조정을 위한 원화 절상 정도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KIEP 모형을 바탕으로 추산한 2007년 6월 말 원/달러 환율은 954.54~959.67로 예상됨.
 - 한편 2007년 6월 말 엔/달러 환율은 108.05~109.69로 예상되고, 위안/달러 환율은 상하 변동폭의 확대 가능성과 절상 기대 형성으로 7.63~7.69로 예측됨.
 - 이와 같은 동아시아 주요국 환율의 절상과정에서 원화 환율의 변동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 추세보다는 단기 변동성의 영향으로 단기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국제유가의 경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의 증폭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60~65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타이트한 세계 원유 수급상황에서 이란 핵문제와 나이지리아 정정불안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폭되거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70달러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07년 통상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DDA의 경우 낙관적·비관적 전망에 관계없이 2007년 3월이 DDA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FTA의 경우 현재에도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활발한 FTA 추진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주요국 경제 전망

가. 미국경제 전망

- 2006년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은 주택투자 및 순수출이 악화됨에 따라 2/4분기(2.6%, 전기대비 연율)보다 크게 둔화된 1.6%를 기록하였음(표 2 참고).

표 2. 미국 GDP 추이

(단위: 전기대비 연율, %)

	2004년	2005년	200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¹⁾
실질GDP	3.9	3.2	5.6	2.6	2.2
개인소비지출	3.9	3.5	4.8	2.6	2.9
민간총투자	9.8	5.4	7.8	1.0	0.0
(설비투자) ²⁾	7.3	7.5	8.2	-1.6	-0.9
(비주거 건설투자)	2.2	1.1	8.7	20.3	16.7
(주택건설투자)	9.9	8.6	-0.3	-11.1	-18.0
정부지출	1.9	0.9	4.9	0.8	2.2
순수출(십억 달러) ³⁾	-590.9	-619.2	-636.6	-624.2	-629.4
(수출)	9.2	6.8	14.0	6.2	6.3
(수입)	10.8	6.1	9.1	1.4	5.3

주: 1) 수정치, 2) 소프트웨어 포함, 3) 연간 환산치.

자료: 미 상무부

- 3/4분기 중 개인소비지출은 주택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내구재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비내구재 소비도 개선됨에 따라 전기대비 3.1% 증가하였음.
- 민간총투자는 비주거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주택투자가 대폭 줄어들음에 따라 5분기 만에 감소로 반전하였으며, 특히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주택투자가 연 17.4% 감소한 것이 경제성장률을 1.12% 포인트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한편 2006년 8월까지만 해도 2007년도 미국경제에 대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었으나 10월에 들어서면서 미국 경기에 대해 조금은 낙관적인 견해가 많아지고 있음.
- 지난 2006년 9월 28일 발표된 2/4분기 미국 GDP 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은 주택건설투자 등 민간총투자 증가율 둔화에 따라 잠정치(2.9%)보다 0.3% 포인트 하향 수정한 2.6%를 기록하였다고 발표되어, 2007년 미국경제의 성장둔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음.
- 그러나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은 지난 10월 6일(미국시간) 캘거리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최근 모기지 신청건수가 가파르게 하락한 후 안정되고(flattening out)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주택시장의 최악의 국면은 끝났을 수도 있다고 밝혔음.
- 아울러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경제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담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0월 24~25일의 회의록과 베이지북(Beige Book)을 각각 11월 15일과 10월 12일에 발표하였음.
-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주택경기 침체 및 원유 수입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1.6%(속보치)로 낮아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4/4분기에는 민간소비의 견실한 증가를 기반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임.
-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로 판단해볼 때 2007년 미국경제는 주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안정 및 추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비자지출과 민간투자지출의 증대효과 등으로 3% 수준의 추세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미국 경제성장의 위험요인은 주택부문 침체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감소임. 전국주택건설업협회의 주택시장지수(Housing Market Index)가 2005년 11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2006년 하반기와 2007년 주택경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 또한 신규 및 기존 주택의 재고 누적과 이에 따른 주택거래와 신규주택 착공(Housing Starts) 감소로 인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2006년 2/4분기 미국 경기의 급격한 둔화를 가져온 주택부문의 침체와 이에 따른 負의 자산효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지난 2/4분기와 3/4분기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인 성장률에 근접하면서 보다 지속가능한 양상을 갖추어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월 30일, 10월 근원 개인소비지출가격지수(근원 PCE, 식품 및 에너지 제외)가 전월대비 0.2%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음(*Wall Street*전망: 0.1%).
- 또한 10월 개인소득 및 임금은 0.4% 상승함. 10월 가처분 개인소득은 전월(0.5%)대비 0.3% 상승하였음.
- Financial Time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FRB가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함(11월 30일).
- 이에 따라 Ben Bernanke는 2007년에는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2006년 중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나. 일본경제 전망

- 지난 11월 14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GDP 통계속보(1차 속보치)에 따르면, 2006년 3/4분기(7~9월)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5%(연율 환산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였음.
-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의 0.4%(연율 1.5%)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이러한 성장세 확대는 주로 설비투자 및 수출확대에 기인함.
- 민간수요: 개인소비 하락 반전, 설비투자 성장 지속

- 개인소비는 전기대비 -0.7% (2/4분기 $+0.5\%$)로 크게 감소하면서 하락세로 반전되었음. 이는 고용자보수 증가율이 전년대비 $+1.3\%$ (2/4분기 $+1.9\%$)로 둔화되고, 폭우 등의 영향으로 하계 소비가 저조한 점에 기인함.
- 그러나 4/4분기에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연말상여금이 인상되어, 둔화되었던 고용자보수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주택건설투자는 전기대비 $+0.1\%$ (2/4분기 -2.5%)로, 제자리걸음을 보였음. 지금까지 주택건설투자를 견인했던 임대·분양 아파트 착공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4/4분기 주택건설투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민간설비투자는 전기대비 $+2.9\%$ (2/4분기 $+3.5\%$)로, 10분기 연속 증가하였음.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확대는 4/4분기 이후에도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공공수요: 감소세 지속, 해외수요: 대폭 증가

- 공공수요는 공공부문의 고정자본 형성이 2/4분기 -6.5% 에 이어 3/4분기에도 -6.7% 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기대비 -1.2% (2/4분기 -0.1%)를 기록하면서 4분기 연속 감소했음.
- 재화·서비스의 수출은 전기대비 $+2.7\%$ (2/4분기 $+0.9\%$)로, 6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음. 이는 엔저(円低)를 배경으로 대유럽 자동차·IT 관련, 대아시아 부품·소재 관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에 기인함.
- 일본경제는 현재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 → '생산·수익 증가' → '고용·임금 증가' → '개인소비 증가' → '생산·수익 증가'의 선순환이 작동되는 회복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번 2006년 3/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5% (연율 2.0%)로,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현함. 이러한 호조세는 특히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함.
- 현재 경기회복의 특징은 완만하면서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회복의 실감도가 낮고, 수출기여도가 과거 회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공공수요 기여도는 매우 낮다는 점 등임.

표 3. 일본 GDP 추이

(단위: 전기대비 %)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5년			2006년		
				2Q	3Q	4Q	1Q	2Q	3Q
실질 GDP (전기대비연율)	2.3	1.7	3.3	1.3 (5.1)	0.5 (2.0)	1.0 (4.1)	0.8 (3.2)	0.4 (1.5)	0.5 (2.0)
국내수요	1.5	1.2	2.9	1.0	0.6	0.4	0.7	0.4	0.1
민간수요	2.2	2.1	3.5	1.1	0.6	0.7	1.0	0.9	0.4
개인소비	0.8	1.6	2.6	0.9	0.9	0.7	-0.1	0.5	-0.7
민간주택투자	0.0	1.7	-0.2	-1.4	1.5	1.6	1.2	-2.5	0.1
민간기업설비투자	7.0	5.6	7.3	2.3	1.1	0.2	3.7	3.5	2.9
공공수요	-0.5	-1.4	0.8	0.5	0.5	-0.7	-0.2	-1.2	-1.2
정부소비	2.5	1.8	1.4	0.3	0.3	0.1	0.0	0.2	0.1
공공투자	-9.5	-12.4	-1.4	1.3	1.5	-3.6	-0.8	-6.5	-6.7
수출	9.7	11.4	9.1	3.6	2.9	3.7	2.5	0.9	2.7
수입	3.2	8.7	6.5	1.7	3.9	-0.8	2.4	1.4	-0.1

주: * 연도는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일본 내각부; Mizuho總合研究所(2006. 11. 14).

- IMF 등의 국제기관과 일본 연구기관에 따르면, 2006~07년도 경제성장률은 각각 2.5%, 2.1%로, 잠재성장률(1%대 후반)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향후 일본경제는 ① 기대성장률을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의 확대, ② 개인소비 및 비제조업의 회복에 따른 경제의 안정도 향상, ③ 미국의 경기둔화, IT 생산·재고조정의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현재의 경기회복기조가 약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미국경기의 대폭 감속, IT 부문의 생산조정 및 미·일 통상마찰 악화 등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2007년 상반기에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정체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은 있음.
- 일본경제가 특히 내수 주도의 理想的인 경기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부각되고 있는 원·엔 환율하락문제는 기본적으로 엔화 약세보다는 원화 강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후자에의 대응전략이 요구됨.

다. 중국경제 전망

- 중국은 2006년 들어서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상(2회), 지급준비율 인상(3회), 철강 등 과잉생산분야에 대한 투자 억제,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 등 일련의 거시경제 안정

화 조치를 추진해왔음.

표 4. 2006년 중국의 주요 경기안정화 조치

일시	주요 내용
2006. 4. 28	대출 기준금리 인상(1년 만기대출금리 5.58% → 5.85%)
2006. 5. 18	부동산 거시조정조치 6개항 발표
2006. 5. 29	부동산 담보 인정비율 하향조정 등 부동산가격억제 시행령 발표
2006. 6. 19	지급준비율 0.5% 포인트 인상(7.5% → 8.0%)
2006. 6. 28	철강, 자동차 등 과열업종에 대한 신규투자 억제
2006. 7. 20	거주용 주택 구입에 대한 실명제 등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2006. 7. 21	지급준비율 8.5%로 0.5% 포인트 인상(8.0% → 8.5%)
2006. 8. 18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 인상(1년 만기대출금리 5.85% → 6.12%)
2006. 9. 15	수출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 발표
2006. 11. 3	지급준비율 0.5% 포인트 인상 발표(8.5% → 9.0%, 11.15 시행)
2006. 11. 3	804개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11월 22일 시행)

- 3/4분기 중 경기안정화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유동성 및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중국의 과열경기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

- 3/4분기 경제성장률은 10.4%로 2/4분기(11.3%)에 비해 0.9%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경기과열을 주도했던 도시지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상반기의 31.3%에서 3/4분기에는 28.2%로 하락하였으나, 투자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높은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와 수출도 각각 13.8%와 28.7%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하였음.

표 5.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9월
GDP 성장률	10.1	9.9	10.3	11.3	10.4	-	-	-
공업생산 증가율	16.7	16.4	16.7	18.0	16.2	16.7	15.7	16.1
소매판매 증가율	13.3	12.9	12.8	13.9	13.8	13.7	13.8	13.9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¹⁾	27.6	27.2	29.8	31.3	28.2	30.5	29.1	28.2
수 출	5,933.6	7,620.0	1,972.4	2,313.7	2,627.3	813.1	907.7	916.3
수 입	5,613.8	6,601.2	1,740.4	1,934.1	2,140.3	657.1	719.7	763.4
무역수지	319.8	1,018.8	232.0	379.6	487.1	146.2	188.0	152.9
소비자물가	3.9	1.8	1.2	1.3	1.3	1.0	1.3	1.5
총통화(M2)	14.6	17.6	18.8	18.4	16.8	18.4	17.9	16.8
FDI	606.3	603.3	142.5	141.8	141.6	42.8	44.8	54.0
환율(위안/달러, 평균)	8.2768	8.1917	8.0398	8.0103	7.9611	7.9732	7.9733	7.9368

주: 1)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누계 기준)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6);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등.

- 2006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철강 등 과잉생산분야에 대한 투자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 등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과열된 중국경제가 다소 진정됨.
- 3/4분기 경제성장률은 10.4%로 2/4분기(11.3%)에 비해 0.9%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경기과열을 주도했던 도시지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상반기의 31.3%에서 3/4분기에는 28.2%로 하락함.
- 선별적 외국인투자정책 추진으로 1~9월 중 외국인투자 유입은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으며, 2003년 이후 중국 외환보유액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던 투기성 자금(Hot money)이 6월 이후에는 순유출로 전환됨.
- 그러나 무역흑자 확대 등 해외부문에 의한 유동성 증가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투자증가율로 인해 2007년에도 중국정부가 추가적인 긴축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11월 15일부로 지급준비율을 종전의 8.5%에서 9%로 재인상하였으며,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9월에는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률을 인하 또는 취소한 데 이어, 11월에는 110개 품목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함.
- 중국경제는 2006년 연간으로 10.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2007년에는 투자와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됨으로써 2006년에 비해 1% 포인트 낮은 9.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증가와 이에 따른 과잉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불가피하나, 중국정부의 환율조절원칙(자주성, 점진성, 통제가능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절상을 선택할 것이며, 절상폭도 2006년과 비슷한 2~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거래비용모형과 통화접근모형을 이용하여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예측한 결과, 2007년 6월 말 위안화 환율은 7.63~7.69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둔화되면서 2007년도 우리의 대중국 수출여건은 2006년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의 수출정책 규제정책이 강화될 경우 대중국 중간재(소재, 부품 등)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라. EU 경제 전망

- 2000년 이래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EU25와 유로지역¹⁾ 경기 상승기조가 3/4 분기에는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EU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중반부터지만 2005년 4/4분기에 잠시 주춤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려웠음.
- EU25와 유로지역은 2006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기대비 0.8%와 0.9% 성장²⁾이라는 고성장을 기록함으로써 경기회복세를 나타냈음.
- 2006년 11월 14일 EU 통계청(Eurostat)이 발표한 EU25의 3/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6%, 유로지역은 0.5%로 추정되어 2006년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음.
- 하지만 같은 기간 EU25와 유로지역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각각 2.8%와 2.6%를 기록하여 1/4분기 2.4%와 2.2%, 2/4분기 2.9%와 2.7%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한편 예상치 못한 프랑스의 경기침체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경제의 조정으로 2006년 3/4분기 경기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음.
- 프랑스는 2006년 1/4분기에 전기대비 0.5%, 2/4분기 1.2%의 성장을 하며 2006년 상반기 EU 경제의 상승세를 주도했으나, 3/4분기에는 성장률이 0%로 추락하였음.
- 또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3/4분기 성장률은 각각 전기대비 0.6%, 0.3%, 0.6%로 상반기의 성적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하지만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각각 2.8%, 1.7%, 2.6%를 기록하고 있음.
- 스페인과 영국의 3/4분기 성장률은 각각 0.9%, 0.7%로 상반기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1) 유로지역(Euro-zone)은 경제통화동맹(Economic Monetary Union: EMU)에 가입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통화(유로화)를 사용함.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등 12개국임.
 2) 2006년 2/4분기의 전기대비 0.9% 성장은 2000년 2/4분기 이래 최고의 기록임.

표 6. EU 및 주요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5년		2006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EU25	1.3	2.4	1.7	0.7	0.5	0.8	0.9	0.5
유로지역	0.8	2.0	1.4	0.6	0.4	0.8	0.9	0.6
독 일	-0.2	1.2	0.9	0.5	0.3	0.8	1.1	0.6
프 랑 스	1.1	2.3	1.2	0.7	0.2	0.5	1.2	0.0
이탈리아	0.0	1.1	0.0	0.3	0.0	0.8	0.6	0.3
스 페 인	3.0	3.2	3.5	0.8	1.0	0.9	0.9	0.9
네덜란드	0.3	2.0	1.5	0.7	0.6	0.3	1.3	0.6
영 국	2.7	3.3	1.9	0.5	0.7	0.7	0.7	0.7

주: 분기별 성장률은 전기대비 기준임.

자료: EU 통계청(Eurostat), European Commission.

- 최근의 각종 경기상황에 관한 데이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며 2007년에도 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구매관리지수는 2006년 6월 최고치 이후 다소 후퇴했지만 10월에도 여전히 견실한 모습이며, 해외주문도 유로화 강세 및 세계경기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음.
- 또한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유로지역의 10월 경기체감지수도 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EU25 및 유로지역 경제의 2006년 성장률은 2005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7년 성장세는 2006년에 비해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7. 예측기관별 EU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예측기관 연 도	IMF		EU 집행위원회		Global Insight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EU25	-	-	2.8	2.4	2.8	2.2
유로지역	2.4	2.0	2.6	2.1	2.6	1.9
독 일	2.0	1.3	2.4	1.2	2.5	1.7
프 랑 스	2.4	2.3	2.2	2.3	2.1	1.7
이탈리아	1.5	1.3	1.7	1.4	1.7	1.3
네덜란드	2.9	2.9	3.0	2.9	2.9	2.1
스 페 인	3.4	3.0	3.8	3.4	3.7	3.1
영 국	2.7	2.7	2.7	2.6	2.6	2.5

자료: IMF(2006),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European Commission(2006), *Economic Forecasts*. (Autumn); Global Insight. (2006), Online Analysis. (November).

- 2005년 각각 1.7%, 1.4% 성장에 그쳤던 EU25 및 유로지역 경제는 2006년에 2.8%와 2.6% 성장하여 회복세를 보인 후 2007년에는 각각 2.2~2.4%, 1.9~2.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3. 국제금융시장

가. 외환시장 전망

- 2007년 외환시장은 미 달러화의 제한적 약세, 원화 일시적 약세 내지 보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치 평균은 엔/달러 환율이 현재의 1달러당 115~120엔 수준에서 6개월 후에는 110엔 내외로 하락하고, 1년 후에는 105엔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달러/유로 환율의 경우 1유로당 1.27~1.28달러 수준에서 6개월 후에는 1.29달러 내외로 상승하고, 1년 후에는 1.31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여 달러화의 가치가 두 주요 통화에 대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2007년 중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는 이유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2007년 중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은 2007년 중 금리인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미국과 주요국간의 경제성장 격차 축소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은 달러화의 약세를 제한적인 범위로 국한시킬 것이며, 미국과 주요국간 금리차이로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달러화를 대체할 자산이 부각되지 않는 한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최근 원화 환율의 추이를 관찰할 때 글로벌 재조정을 위한 원화 절상 정도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KIEP 모형을 바탕으로 추산한 2007년 6월말 원/달러 환율은 954.54~959.67로 예상됨.
- 한편 2007년 6월 말 엔/달러 환율은 108.05~109.69로 예상되고, 위안/달러 환율은 상하 변동폭의 확대 가능성과 절상 기대 형성으로 7.63~7.69로 예측됨.

- 이와 같은 동아시아 주요국 환율의 절상과정에서 원화 환율의 변동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 추세보다는 단기 변동성의 영향으로 단기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나. 장단기 금리 전망

- 미국 경제성장률은 2006년 3.3%에서 2007년 3.0%로 소폭 둔화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과 유로지역의 단기 정책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미 달러화는 제한적 약세를 나타내고 장기금리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투자은행들은 2006년 11월 25일 4.55% 수준인 10년 만기 미 국채의 수익률(미국 장기금리의 벤치마크 수익률)이 2006년 말까지 4.96% 수준으로 상승하고 2007년 중에는 5.0%를 전후하여 등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정책금리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드라이브는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EU와 일본은 금리인상을 지속할 전망이다.
- 2006년 중 연방준비은행은 연방기금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1.0% 인상하였으나 8월 8일 FOMC 이후 세 차례 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최근에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볼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리인상드라이브는 중단된 것으로 보임.
- 일본 중앙은행은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과 중립수준으로의 정책금리 조정을 할 것으로 보임. 2007년 중 금리인상을 지속할 전망이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 이후부터 2006년 10월까지 다섯 번 연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3년 6월 이후 2년 반 동안 2%로 유지시키던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하였음.
- 아울러 2006년 11월 ECB의 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3.25%)에서 동결하였으나, 2006년 12월과 2007년에 각각 0.25% 포인트씩 인상하여 2007년 중 기준금리는 3.7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다. 최근 세계자본 흐름

1)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 지속

- 글로벌 불균형의 재조정에 따른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최근에도 지속됨.
- 신흥시장국(특히 동아시아 국가)은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축적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들의 상당 부분(글로벌 불균형 재조정에 따른 외환보유액 다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이 미국 정부채 등 미 달러화 표시 자산에 재투자되고 있음.
- 중동을 비롯한 러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산유국들은 고유가로 인해서 대규모의 오일달러를 축적하였고 산유국의 미 국채 매입액도 2004년 이후 최근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
- 2006년 9월 현재 對미 포트폴리오 순유입 규모는 전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 1~9월 對미 순유입액은 전년동기 유입액을 상회하고 있어 여전히 자본 유입세가 지속됨.

2) 자본 유입 패턴의 변화 조짐

- 해외투자자들은 최근에 미 국채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위험자산인 회사채 및 주식에 대해서 매입 포지션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에 관심이 전환되고 있음.
- 기축통화로서의 안전자산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요 선진국간 금리격차 축소 등에 따른 미 국채 투자매력의 감소에서 기인함.
- 글로벌 재조정과정에서의 달러화 약세 전망으로 인한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액 다변화 정책과 오일달러의 역내시장 재투자로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 규모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인 중국(2006년 10월 현재 1조 달러 돌파)은 환율제도 변경과 더불어 외환보유액의 포트폴리오 변화 가능성 존재. 현재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이 달러 표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중국의 외환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경우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 변화도 점진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 최근 오일달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등 걸프만 6개 산유국의 인프라산업 및 국가기간산업,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하고 있는 반면 미 국채 매입액은 2004년 중 1천억 달러에서 2005년 2월~2006년 1월은 500억 달러 미만으로 급감함.
- 신흥시장 민간부문으로의 자본 유입은 세계경제 둔화와 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4. 국제유가 및 통상환경 전망

가.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 국제유가는 2006년 8월 말부터 미국의 주택경기 둔화, 이란 핵 갈등 잠복,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반전되어 3개월 동안 55~60달러 수준을 유지함.
- 국제유가의 하락세 지속으로 OPEC은 11월 1일부터 120만b/d 감산 결정을 하였으나, OPEC 회원국들의 감산 이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어 그 파급효과는 미미함.
- 한편 최근 급격한 유가 하락과 석유 재고 급증으로 인해 OPEC은 11월 1일부터 120만b/d 감산을 10월 총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이번 감산 결정은 동절기 수급상황을 타이트하게 만들어 추가적인 유가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며, OPEC은 고유가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신축적인 생산량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됨.
- OPEC의 실질적 잉여생산능력은 2007년에도 200만 배럴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유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 석유 수급
-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은 2007년 세계 석유수요를 2006년에 비해 150만b/d 증가한 8,650만b/d로 전망하였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7년의 세계 석유수요를 전년대비 145만b/d 증가한 8,594만b/d로 전망함.

표 8. 해외 주요기관의 2007년 국제유가 전망

	CGES	CERA			EIA	PIRA	
	Brent	WTI	Brent	Dubai	WTI	WTI	Brent
2006년 평균(A)	64.60	65.36	64.33	60.50	66.86	65.30	66.45
2007년 평균(B)	58.70	60.00	58.50	55.50	65.92	63.15	64.50
(B-A)	-5.90	-5.36	-5.83	-5.00	-0.94	-2.15	-1.95

주: CGES: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자료: 한국석유평가;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 또한 EIA에 따르면, 비OEPC의 2007년 공급 증가분은 60만~130만b/d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 이상의 영향으로 2007년 세계 석유 수급상황은 2006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KIEP 전망: 2007년 평균 60~65달러(견조한 수요, 생산차질위험 산재)
- 2007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6년에 비해 0.2% 포인트 낮게 전망되지만,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경제성장세가 강한 상태임.
- 실물부문에서 석유 수급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 200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OPEC의 잉여생산능력도 평년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임.
-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의 증폭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007년 국제유가는 60~65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타이트한 세계 원유 수급상황에서 이란 핵문제와 나이지리아 정정불안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폭되거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70달러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통상환경 동향 및 전망

1) DDA 동향 및 전망

- 지난 11월 16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임시 TNC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DDA의 정상화”를 제안함.

- 라미 사무총장의 제안은 DDA의 재개(resumption)는 아니며, 재개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으로 해석해야 적절함.

- 2007년 DDA 전망: 여전히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동시에 존재함.

- 낙관적 전망: 2007년 말 DDA 종료

- 비관적 전망: DDA 표류 지속, 2007년 프랑스 대선 이후 본 궤도에 진입하여 2008년이나 2009년 타결

■ 낙관적 전망

- 2006년 12월(또는 2007년 1월) DDA 공식 재개 선언
- 2007년 1월 중 Davos Forum을 계기로 DDA 전 분야 협상 개시
- 2007년 3월 말까지 세부원칙 합의·도출
- 2007년 9월 말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 2007년 12월 말 DDA 종료

- 낙관적 시나리오의 가장 큰 전제조건: 미국 TPA의 연장

■ 비관적 전망

- 잔여 핵심 쟁점이 많이 남아 있고, 동시에 핵심 쟁점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차이가 커서 3개월의 협상으로 2007년 3월까지 타협안을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설령 2007년 2~3월경 라미 text가 나온다고 해도 주요국이 협상결과의 기대수준(level of ambition)을 낮추지 않는 이상 타협 가능성이 낮음.

- 2007년 프랑스 대선이 끝나고, 2007년 후반기에 가서야 DDA가 다시 재개되어 실질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경우 DDA 종료는 2008년 말 또는 2009년 말이 되어야 가능함.

■ 종합

- 낙관적·비관적 전망에 관계없이 2007년 3월이 DDA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라미 text가 나올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정치적 이해 절충 및 타협 가능성에 대비한 정교한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2-track approach가 필요함.

2) 세계 FTA 추진동향 및 2007년 전망

- WTO(2006년 9월 현재)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210건으로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3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이외에 서비스협정이 45건, 개도국간 협정이 20건, 관세동맹이 11건으로 집계됨).
- 시기별로 2000년 이전에 WTO에 통보된 FTA의 수는 39건에 불과하나 2000년대에 들어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4년에 100건에 이르렀으며 2006년 9월 현재 134건을 기록하였으며, 지역별로 최근 들어 아시아 국가들이 FTA 추진에 있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현재에도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활발한 FTA 추진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와 칠레, 페루, MERCOSUR 등의 남미지역 및 EFTA 등 유럽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활동이 예상됨.
- 이는 최근 EU가 다자주의 우선원칙을 내세워 FTA 추진을 자제하고 있으며 미주지역 역시 FTA 추진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임.

※ 본고는 「2007년 세계경제 전망 총괄편」이며, 각 국가별 상세한 경제 전망은 다음을 참조할 것 : 제06-41호(2).pdf